우리 모임에선

유마회 등산객에 무료급식

안양 유마회(회장 강부동)는 24일 관악산 삼막사에서 주민과 등산객 2천여명에게 국수무료공양을 실시한다. 유마회는 삼막사 부부불자 12명으로 구성, 불교포교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악산 등산객들에게 매달 넷째주 일요일 12시부터 삼막사에서 무료 국수공양을 해오고 있다. (0342)701-5611

심우회 노동자에 무료공양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2일 사당1동 사무소앞에서 새벽 3시부터 아침6시까지 인력시장에 나온 1백여명의 건설노동자들에게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어 서초구 미화원 1백10명에게 대중공양을 했다.

하불동 낙산사 철야정진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16, 17일 낙산사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철야정진및 불교유적지를 참배했다.

하이텔 불동 강원지역모임(지역장 이성모. 춘천동성한의원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6일 오후 6시 낙산사에서 법회를 시작으로 새벽예불, 의상대 해맞이 등을 갖고 향토사학자 홍성익선생의 안내로 진전사지와 선림원지등 불교유적지를 순례했다.

국립재활원 문화 한마당

국립재활원 불교법우회(지도법사 정진스님)는 4월 22일 재활원 강당에서 법경스님(조계종 포교국장), 한충기 재활원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파일 기념법회 및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상도동 보문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장애인교육생과 입원환자 5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천주교 수녀 5명과 신자 50여명도 참석하여 종교의 벽을 허문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자고 축사했다.

한라서 백두까지 연등 밝힌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9일 총회를 갖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통일 한국건설을 위해 매진키로 했다.

불교산악인련 내년~2001년 추진
6월14일 선포식…통일운동 앞장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행사'가 내년부터 2천1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대현그룹회장)는 9일 총47개 지회중 33개 산악회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창립1주년 기념법회 △회보발행 △각 지회 및 단위산악회간 합동 산행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6월14일 광주불교산악회가 주관하여 광주 무각사와 무등산 일대에서 개최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행사 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남북간 종교교류를 통해 통일 한국 건설에 앞장선다'는 케치프레이즈로 마련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의 이번 21세기 통일한국 기원 대장정은 국토최남단 마라도와 한라산을 거쳐 휴전선을 통과하여 백두산까지 1 백두대간과 1 정간, 13 정맥에 민족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 21세기 세계인류와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을 밝힐 계획이다.

산행방법은 47개 전국산악회에서 2명씩 선발하여 전구간 종주팀이 끝까지 종주하고, 각 지회는 해당 봉우리에 종주팀이 도착하면 함께 연등점화법회를 갖는 부분구간 이어가기 산행을 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구간은 북한불교도단체와 협의하여 북한 산악회와 합동으로 산행할 방침이다.

손현수회장은 "불교산악인연합회가 창립이후 1년간 발전을 위한 조직화작업을 해왔다면 2년차부터는 중·장기 사업을 펼쳐나가며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며 "통일한국을 건설하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속에 통일사업 추진위를 구성하여 북한동포돕기 기금모금등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산악인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고문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인곡(태고종 총무원장)스님, 서돈각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송석구동국대총장, 박봉식 통도사신도회장을, 자문위원에 불교신문 사장 정휴스님, 불교TV 사장 정우스님, 불교방송 성낙승사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을 위촉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동호회內 사이비종교 활동

유니텔, 영생교 침입…스님비방·교리 왜곡

유니텔불교동호회에 영생교도의 침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유니텔 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영생교를 비롯한 사이비종교들의 불교왜곡과 관련 정법수호차원에서 발본색출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하나'라는 ID를 사용하는 위장불자 영생교도 현경서씨는 최근 유니텔불교동호회 회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불자여러분'이라는 메일을 보내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허망한 유의법"이며 스님을 '잡승'으로 표현하며 '3천년간 속았으면 됐다' '큰스님들은 밥을 축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등 영생교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영생교도들은 또 4월24일부터 13일까지 유니텔통신 토론마당에 한도율씨(ID Victdr81)가 의장으로 '석가는 성불한 부처인가?'리는 1142번 토론실 참여란을 개설하고 서로 묻고 대답하며 불교를 왜곡하고 영원히 죽지않는 진리인 영생교를 알아야 한다는 요지로 토론방을 이끌어 왔다.

무려 9백32건이나 올라온 토론방에는 '신금강경' '팔만대장경의 숨겨진 비밀' '감로…' '성불해탈자 조희성' 등 영생교관련 내용이 무수히 등록돼 있고 불교인들의 토론내용은 부정적인 부분만 남겨둔채 거의 삭제된 상태. 이는 9백32건중 4백83건만 등록돼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유니텔불동 대표시샵 김희정씨는 10일 '일련의 사태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영생교도들이 교묘하게 불자로 위장하여 불교동호회에서 설쳐대고 있다"며 "영생교도들이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전국을 돌며 영생교교리를 주입시키고 회비까지 받아 착복해 왔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다수의 영생교도를 확인하여 제명처분하자 이교도들은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교교리를 이용한 자신들의 정당성과 영생교 교리파급, 대표시샵 인신공격등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우리는선우 장애인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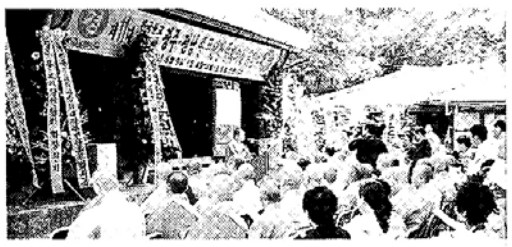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10일 '제5회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장충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노인 1백20명과 자원봉사자 1백4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정각회 불자 초청만찬

조계종 총무원은 8일 오후6시 종로구 하림각에서 국회정각회와 정각동우회 소속 불자를 초청 만찬회를 가졌다. 만찬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암도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등 종단지도자와 서석재 정각회장, 김명윤 박상규 박철언 함종한 한규선의원을 비롯한 정각회원과 동우회원 5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고도보존법 추진과 사지복원 등 불교계 숙원사업들의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광주 향림사 전법도량 현판식

광주 전법도량 현판식이 10일 향림사(주지 천운스님)에서 거행됐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문을 통해 "전법도량 지정을 계기삼아 향림사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불교중흥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광민스님(무각사주지), 광주시장 후보 고재유, 남구 이정일 구청장, 광주불교방송 이상진사장, 광주불교능인회 김두원회장, 광주불교법원장 기우성씨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취임

제11대 광주·전남종무원장및 종회의장 취임식이 9일 광주 운천사에서 태고종 종무원장 인곡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현지스님, 전남불교신도회장 김두원,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임 종무원장 동환스님(나주 태평사주지)과 종회의장 법천스님(광주 선양사주지)은 "사회복지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광주·전남종무원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덕유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열어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덕유1단지부녀회(회장 박순덕)와 함께 4일 오후 덕유마을 노인정에서 저소득 노인 1백여명을 초청,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사철 국회의원(한나라당)과 한병환 시의원(국민회의) 등 지역유지들이 참석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점심·다과회, 노래자랑 등의 잔치를 벌였다.

탐방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

신심과 화합 심는 '노래 포교사'

◇음악을 통해 종단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 27명의 불교음악인들은 불교오케스트라 창단을 발원하고 있다.

합창단 지휘자 등 27명 구성
종파 초월 '연합합창 발표'
불교오케스트라 창단 발원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는 음악을 통한 불법홍포와 자기수양을 위해 지난 91년 2월 대구지역 8개 불교합창단의 지휘자들로 결성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교합창제를 위해 창립, 거의 매년 4월초파일을 기해 연합합창제를 개최해왔다. 94년부터 경북지역으로 문호를 확대, 현재는 대구경북지역의 불교합창단 지휘자 및 불자음악가 27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이 지역의 불교음악을 선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진각종 금강합창단, 사원주지연합회합창단, 천태종 풍락합창단, 불국사합창단, 한마음선원 송언합창단 등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합창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회원들은 년1회 연합합창제를 개최하며 각 합창단은 개별적으로 합창발표회를 갖는다.

이 모임의 장점은 회원마다 전공이 다르다는 것. 국악전공에서부터 작곡 성악 기악 피아노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전공이 다양해 수준높은 연합합창을 창출해낸다는 평을 받고있다.

회원들은 모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중 석사출신만도 70%에 달한다. 또 대학에 출강하는 회원이 7명에 달하고 있으며 해외유학파도 5명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종단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 조계종은 물론 진각종 천태종 총지종 등 타종단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음악을 통한 대중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同협회는 올 가을 불지성악가 중심으로 찬불독창회를 열 계획이며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교계 최초의 불교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서원을 세워놓았다.

'우리도 부처님같이'의 작곡자인 이달철회장(45·심인고교사)은 "불교음악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제고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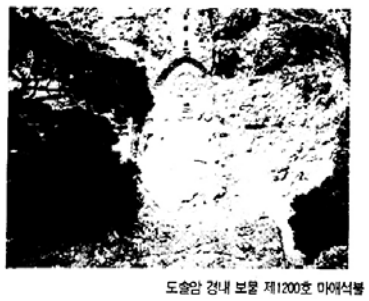
대구=이윤호 기자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솔암

윤 오월 삼사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삼사 참배도 합니다."



도솔암 경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경내 도솔천 내원궁

선운사 도솔암 은 1422년의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서해제일의 기도영험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진흥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천애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번에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닦았고 도솔암 입구에 천여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 도솔암 오는 길 ◆

◆ 승용차편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읍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양사 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 열차편
서울역~정읍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읍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버스편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읍이나 정읍에 도착 -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사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삼사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2천명까지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삼장지장보살님을 친견합시다 ◆
天藏보살 보물 280호(도솔암)
人藏보살 보물 279호(선운사)
地藏보살 (신라말경 추정 - 참당선원)

◆ 참 배 코 스 ◆
■ 제 1코스 : 도솔암, 참당암, 선운사
■ 제 2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소사
■ 제 3코스 : 도솔암 선운사, 실상사(내변산)

도솔천 내원궁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0677)64-2861, 61-0075 팩스 : (0677)61-4080
문의처 부산 · 경남 : (051)632-0383/대구 · 경북 : (053)255-2838/서울 · 경기 : (02)238-9910